

## 느헤미야의 리더십

(느 2:11-20)

인생은 산 너머 산이라고 말들 합니다.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관한 슬픈 소식을 듣고는 4개월 이상 기도하였습니다.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선하신 손을 펴 주셨습니다.

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 20년 445 B.C.에 예루살렘에 도착하였습니다. 예루살렘에 도착한 느헤미야가 본 예루살렘 성벽의 상황은 쉽지를 않았습니다. 그러나 느헤미야는 52일 만에 성벽 재건을 완성하였습니다.

느헤미야는 어떻게 이러한 일들을 이룰 수 있었습니까? 먼저 그는 면밀하게 예루살렘 성벽을 살펴 보았습니다. 그리고 그는 성벽 재건을 위한 중요한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. 어떤 리더자들도 중요한 일을 위해 모든 정보들을 입수할 수 없지만 실재적 정보들을 토대로 중요한 아이디어를 가져야 합니다. 느헤미야는 현실적 정보 위에 성벽 재건을 위한 아이디어를 가졌습니다.

두 번째 느헤미야의 성벽재건을 위한 비결은 적절한 타이밍을 가진 격려와 도전입니다.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도착한 지 4 일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역할과 중요 정책에 관하여 궁금해 할 때에 성벽재건을 하자고 격려하였습니다. 리더자의 때에 맞는 격려는 대단히 중요합니다. 격려하시는 리더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.

세 번째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축의 비결은 그의 영적 시각입니다.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의 돌아가는 것을 냉철하게 바라 볼 줄 알아야 합니다.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시각 역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.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거한 지 3 일째 밤에 나가서 예루살렘의 허물어진 성벽과 불탄 성문들을 보았습니다(14절)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각을 가지고 2:20, '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로 형통케 하시리니'라고 말하였습니다.

느헤미야 처럼 하나님의 선한 손이 여러분들을 도와 형통케 하실 것을 믿으시고 이 시대의 허물어진 것들을 세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.